

전북



“새희망 솟는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지난 1일 무주군 설천면 덕유산 향적봉(해발 1416m)을 찾은 등산객들이 신묘년 새해 해맞이를 하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덕유산 설천봉~향적봉~중봉 구간 등 전국 40곳을 설정 탐방지로 선정했다.

기초단체장 새해 청사신

송하진 전주시장

탄소산업·韓스타일 중점 추진

“전통과 첨단은 비범으로 힘찬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송하진 전주시장은 “신묘년 새해 전주시장의 또 다른 화두는 융합과 통섭의 상징인 ‘비범’이라며 “전주경제의 양대 축이라 할 전통과 첨단산업의 조화로운 공존을 이끌어 내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폭제로 삼겠다”고 새해포부를 밝혔다.



자리 창출, 해외하우스 확대운영,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강화, 전주시장시설 경영 현대화 사업도 본격 시행된다.

전주시는 올해 국내 굴지의 탄소산업 관련 대기업 등 50개사의 기업유치를 목표로 새해 벽두부터 발품을 팔 각오이다.

이를 위해 송 시장은 올해 ‘한 마디의 말과 한 번의 행동에 앞서 세 번 생각한다’는 ‘삼사일언동(三思一言動)’의 자세로 업무에 임해주길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업무를 추진할 때는 단호한 자세로 철저히 완수하는 모습을 보여, 시민들의 기대수준에 걸맞은 공직자상(像)을 창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새만금 관광 개발

새해 시정은 ▲전주경제의 전통과 첨단 조화 ▲균형적 도시개발과 녹색성장 ▲시민의 안전과 행복이라는 3대 비범정책을 초석으로 탄소산업과 한스타일 등 6대 역점분야 사업을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비중있게 추진할 6대 분야별 역점사업은 ▲탄소산업 중심도시 ▲한스타일 선도도시 ▲창조적 아트폴리스 ▲새만금 중추도시 ▲따뜻한 복지도시 ▲상생의 자치도시이다.

아울러 송 시장은 도·농간의 균형발전과 지역간의 상생협력에 힘을 쏟고 노령화와 출산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경제, 문화, 복지, 환경 등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분야를 아우를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송 시장은 “가장 한국적인 도시, 힘 솟는 전주를 목표로 한차례 출범한 민선 5기는 지난 한 해 동안 시정 운영 방향과 실천 전략을

립, 이에 걸맞은 효율적인 조직으로의 변화에 많은 노력과 열정을 쏟아 왔다”며 “그 결과 탄소산업이 2000억원 규모의 국가사업으로 지정됐고, 한옥마을이 ‘한국관광의 별’과 ‘국제 슬로시티(Slow City)’로 선정됐으며, 48개의 우량기업 유치와 1만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다양한 부문에서 앞장 선 성과를 거뒀다. 더불어 전주경제의 기틀은 튼튼히 다지고,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의 위상은 더욱 높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전주시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본격적으로 민선 5기의 핵심 사업들을 추진한다.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전주지역의 관광이 새만금과 연계된 체류형 패키지 상품으로 개발되고, 탄소산업 중심도시를 위한 생산도시 기반구축과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중점 추진된다.

또 2000억원의 국비지원이 이뤄지는 탄소밸리 사업을 비롯해 일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

송 시장은 “시민의 지지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21세기 행정은 ‘시민의 신뢰를 얼마만큼 확보하느냐’에 그 성과가 달려 있다”며 “신뢰가 넘치는 행정은 시민으로 하여금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을 갖게 만들고, 지역발전의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게 하는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송 시장은 “올 한해동안 단기적인 성과나 화려한 전시효과에 흔들리지 않고 10년, 20년 후를 준비하는 자세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군산 경암동 돌산 사라진다

7억 들여 도로 개설... 일대 상거래 활성화 기대

그동안 군산 도심의 개발을 가로막고 있던 경암동 돌산이 올해 안으로 사라져 도심 개발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3일 군산시에 따르면 경암동 공설시장 인근에 채석장이 중지된 상태로 방치된 돌산을 올해 안으로 파내고 7억원을 들여 돌산 바로 옆으로 폭 10m 넓이의 도로를 개설할 방침이다.

시는 돌산 처리를 위해 진행해왔던 돌산 소유주와의 협의를 최근 끝냈다.

이에 따라 한전은 새만금 단기간에 성과나 화려한 전시효과에 흔들리지 않고 10년, 20년 후를 준비하는 자세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암동 돌산은 6~7년 전부터 채석이 중단된 채 방치돼 도심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주변 도로개발에도 장애가 돼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군산시 관계자는 “돌산을 해체하고 옆에 도로를 개설하면 군산역과 중동, 경암동 일대의 차량소통이 더욱 원활해지고 군산역 인근의 재래시장의 상거래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새만금~군산 송전선로 2월 착공

전자파 피해 따른 인근주민 반발 거셀듯

새만금 산업단지의 전력공급을 위한 송전선로 공사계획이 인가돼 이르면 2월부터 공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지식경제부로부터 송전선로 공사 인가를 받음에 따라 이달 초 도시계획사업(전력공급설비) 실시계획 인가를 얻어 2월부터 사업에 착수하고 철탑 부지보상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전은 새만금 산업단지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905억원을 들여 군산전력소~새만금전소(30.6km)에 철탑 92개 등을 갖춘 송전선로를 오는 2012년까지 설치할 계획이

다. 하지만 철탑방식의 송전선로 설치로 전자파 피해에 따른 건강권과 재산권의 보상을 요구하는 인근주민의 반발이 거세 갈등이 예상된다. 한편 전북도는 2012~2020년 10조원을 들여 태양광 산업의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 제조공장 등을 설립하려는 OCI(옛 동양제철)가 최근 전력을 위해 225억 4900만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히자 지경부와 환경부에 인·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 기자 nogusu@

동학재단, 정음 기념관 운영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김영식)이 올해부터 정음시에 있는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운영한다.

전북도는 최근 기념재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그동안 도가 운영한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3년간 맡기기로 했다. 한 해 운영·관리비는 25억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기자노트

최근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언론계에는 지난해 경남 양산시가 표방한 ‘신선한 결단’의 과장이 확산되고 있다. 양산시(시장 나동연)가 지역신문사 난립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정(市政)취재인원사출 및 운영’ 준칙을 제정해 공표한 것은

이같은 실정에서 양산시가 결

양산시의 ‘결단’

그동안 결코 가볍게만 여겨왔던 부실 언론의 치부를 드러낼 수 있는 현실적인 메스라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이다.



강철수

양산시는 올해부터 한국ABC협회(신문발행부수 공식 조사기관) 조사에 따라 발행부수 1만부 미만 신문사의 기자 출입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또 광고나 광고도 게재하지 않겠다고 밝혀 전국 자치단체로부터 격려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정한 언론 준칙은 매우 시의 적절하다. 지난해 ABC협회가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각신문의 발행부수를 조사해 발표한 양산시의 조치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고 명분 또한 매우 크다.

양산시의 용기있는 결정에 따라 이제 우리 호남지역 지자체들도 변모해야 한다. 산술적인 공평을 따지기 앞서 발행부수와 유통부수 신뢰도 등을 따져 지위를 차별화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되레 해악을 불러오는 ‘잡초’에 거름을 주는 우둔한에서 벗어날 수 있다. /knews@

남원 산악인 세계 6대륙 등정

손영조씨, 남극 빙산 매시프 성공

남원출신 산악인이 남극대륙 최고봉인 빙산 매시프(해발 4897m) 등정에 성공했다.

3일 남원시에 따르면 (사)한국산악회 전북지부 손영조(44·국립공원 관리공단) 대장은 지난해 11월 30일 아르헨티나 남단 푼타아레나에서 원정을 시작한 지난해 9월 오후 3시30분(현지시간) 남극 빙산 매시프 정상에 올랐다.

손 대장은 지난 2001년 유럽 최고봉인 엘브루즈(해발 5652m)를 시작으로 남미 아콩카구아(6959m), 북미 매긴



리(6194m), 아프리카 킬리만자로(5895m), 에베레스트(8848m) 등 5대륙 최고봉 등정에 성공했다.

이번 도전은 전북도의 새만금사업 성공을 기원하고 도민의 역할을 하나로 결집하기 위한 한국산악회 전북지부의 대륙 최고봉 정복 프로젝트의 여섯 번째 도전이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기자 bs8787@

GG경매 컨설팅(주) Real Estate advertisement with various property listings and contact information.

현대공인중개사 Modern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land and property sales.

애플지식센터 Apple Knowledge Center advertisement for IT services and training.

금산공인중개사 Ginsan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real estate services.

대인동심일부동산 Daein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real estate services.